釋讀口訣의 '故'자의 현토 경향에 대한 고찰(1)

－字吐釋讀口訣 자료 5종을 대상으로－

장경준*

요 약

이 글은 자토석독구결 자료 5종을 대상으로 하여 '故'자의 현토 경향을 고찰한 것이다. 선행 요소, 문헌의 종류, 통사적 환경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故'자의 일반적인 현토 경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었다.

첫째, '故'자가 동사구 끝에 위치한 경우, 동사는 '-ㄱㅅ'로 현토되었으며, 이 때 ①'故'가 문장 종결의 위치에 있으면 '故ㅣ'(〈화소〉에서는 '故ㅋㅏㅣ')로 현토되었고, ②'故'가 인과관계를 가지는 접속문의 선행절에 속해 있으면 '故ノ'(〈화엄〉,〈화소〉에서는 '故ㅊ')로 현토되었고, ③'故'가 나열관계를 가지는 접속문의 선행절에 속해 있으면 '故ㅁ'(〈화소〉에서는 '故ㅋㅁ')로 현토되었다.

둘째, '故'자가 명사구 끝에 위치하는 경우, 명사구는 '-ㅅ'로 현토되었으며, 이 때 '故'는 '故ノ(x)'로 현토되었다.

셋째, '故'자가 독립된 명사로 쓰인 경우, '是故'는 '是(ㅋ) 故ㅅ'로 현토되었고, '何以故'는 '何以故ㅓㄴ(x)ㅎㅁㅅㄱ'(〈유가〉에서는 '何以故ㅓㄴㅁㄱ', 〈구인〉에서는 '何以故ㅅㄱ')으로 현토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현토 경향에서 벗어나는 소수의 용례들은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 연세대 박사과정

이러한 기존 석독구결 자료의 현토 경향에 대한 지식은 앞으로 각필 자료의 해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석독구결, 자토석독구결, 현토 경향

1. 머리말

최근 각필로 토를 단 구결 자료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는 토에 해당하는 요소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점이나 선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판독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것을 해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각필 점토구결 자료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발굴된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망된다.[1] 이들은 한문 원문의 구성 요소에 토를 달므로써 우리말 문장을 구성한다는 표기법상의 원리를 공유하고 있고, 현토 대상 성분을 우리말로, 다시 말해 새겨서 읽는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며, 시기상으로도 매우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자토석독구결에 대한 지식이 점토구결 해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검토에서는 특정한 한자에 특정한 구결

1) 이 글에서는 한문 원문에 토를 달 때 점과 선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문자를 이용하는가를 기준으로 구결 자료를 분류, 지칭하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點吐口訣", "字吐口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이 중 "점토구결"은 남풍현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한 용어이다)
따라서 한문 원문의 구성 요소를 새김으로 읽는 석독구결의 경우 점과 선을 이용하여 토를 달았다면 "점토석독구결"이라, 문자를 이용하여 토를 달았다면 "자토석독구결"이라 부르기로 한다. 아울러 토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된 문자를 "口訣字", 토를 표시하기 위해 이용된(특정한 위치 정보를 포함한) 점과 선을 "口訣点"이라 부르기로 한다.

자가 규칙적으로 현토되는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만일 그러한 경향성이 인정되고, 점토구결 자료에서도 동일한 특정 한자에 특정한 구결점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다면, 대응하는 구결자와 구결점은 적어도 그 환경에서는 동일한 요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故'자의 현토 경향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기존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故'자에는 'ノ, ㄱ, 攴, 攵, 丨, 土, 亠, 刂, 灬' 등의 다양한 구결자가 현토되어 있고[2] 각필 점토구결 자료의 '故'자에도 다양한 구결점이 현토되어 있는 바, 자토석독구결 자료의 현토 경향을 정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그러한 관찰을 통해 유의미한 규칙성이 발견된다면 이는 각필 점토구결 자료의 해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3]

이에 이 글에서는 기존의 자토석독구결 자료에서 '故'자가 현토되어 있는 용례들에 대해[4] 먼저 선행 요소에 따른 '故'자의 현토 경향을 검토하고(2장), 다음으로 문헌의 종류에 따른 '故'자의 현토 경향을 검토하고(3장), 이어서 문장 전체의 통사적 환경에 따른 '故'자의 현토 경향을 검토한 다음(4장), 현토 경향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소수의 예들을 검토하는(5장)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2) 이는 거의 대부분 '[로]'로 읽히는 구결자들만이 현토되어 있는 후대의 음독구결 자료와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따라서 '故'자의 현토 양상이 다양한가, 획일적인가의 여부는 석독구결 자료와 음독구결 자료를 구분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기존 석독구결 자료의 현토 경향에 대한 지식이 점토 구결의 해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토된 구결자들이 각각 어떠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2001ㄴ)을 참고하기 바란다.

4) 이 글에서 기존의 자토석독구결 자료 5종의 약호는 각각 '<구인>,<금광>,<유가>,<화엄>,<화소>'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들 자료에서 현토된 '故'자의 용례에 대한 색인 결과는 졸고(2001ㄱ)의 "붙임"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선행 요소에 따른 '故'자의 현토 경향[5]

이 글의 검토 대상이 된 석독구결 자료에서 '故'자에 현토된 용례는 총 249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6] 이를 구결문에서 '故'자에 선행하는 토와 '故'자에 직접 통합된 구결자를 기준으로 목록화하면 다음 [표1]과 같다.[7]

아래 [표1]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발견된다.

① '故'자의 선행 요소는 동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83%), 그 밖에 명사구인 경우(4%), "是(ㅣ)"인 경우(9%), "何以"인 경우(4%)가 있다.

② 선행 요소가 동사일 경우, 그 동사에는 거의 예외없이(98%) '-ㄱㅅ'가 현토되며,[8] 이 때 '故'자에는 다양한 토가 달렸는데 'ノ'나 'ノ'를 앞세운 것의 비율이 높다.(64%)

---

5) 이 부분은 졸고(2001ㄱ)의 제2장에서 다룬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6) <금광>의 앞부분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되더라도 선행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7) 이 글의 [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용례의 개수를 가리킨다.

8) '-ㄱㅅ'의 자리에는 '-ㄲㅅ'가 현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ㄱㅅ'와 '-ㄲㅅ'가 각각 어떤 환경에서 쓰였는지, 나아가 '-ㄱ-'과 '-ㄲ-'의 대립이 문법적으로 유의미한 변별성을 가졌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선행 요소가 화자나 주어의 의지나 욕망을 표현하는 '[Vst]ㅅ ン-'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ㄲㅅ'로 현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되는 정도인데,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ㄱㅅ'로만 적기로 한다. 그리고 [Vst]과 '-ㄱㅅ' 사이에는 '-ナ-, -ラ-' 등의 선어말어미가 통합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논의의 편의상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총 249)	선행 요소가 '[Vst]-ㄱ ㅅ'인 경우(203)	그 밖의 경우(46)
故ノ (139)	[Vst]-ㄱ ㅅ 故ノ(120) [Vst]-ㄱ ㅅ 故ノミ(3) [Vst]-ㄱ ㅅ 故ノリ分(1) [Vst]-ㄱ ㅅ 故ノソ分(2) [Vst]-ㄱ ㅅ 故ノノ个人(1), [Vst]-ㄱ ㅅ 故ノソニロ尸分(1) [Vst]-ㄱ ㅅ 故ノソ尸矢ナㄱリ丨(2)	[NP]ㅅ 故ノ(5) [NP]ㅅ 故ノソ分(1) [NP]ㅅ 故ノソ弓(1) [NP]ㅅ 故ノソ尸矢ナㄱリ丨(1) [NP]ㅅ 故ノソニロトㄱリㄱ丁ソ彡(1)
故ヲ(1)	[Vst]-ㄱ ㅅ 故ヲ(1)	*
故支(17)	[Vst]-ㄱ ㅅ 故支(16) [Vst]-ㄱ ㅅ 故支彳(1)	*
故分(22)	[Vst]-ㄱ ㅅ 故分(22)	*
故丨(9)	[Vst]-ㄱ ㅅ 故丨(9)	*
故一(12)	[Vst]-ㄱ ㅅ 故一(5)	何以故一ソロㄱ(3) 何以故一ソ干尸入ㄱ(2) 何以故一ソナ干尸入ㄱ(1) 何以故一ソ白ノ干尸入ㄱ(1)
故土(7)	[Vst]-ㄱ ㅅ 故土(4)	[Vst]人 故土(1) [Vst]彡 故土(1) 非矢土ろ 故土(1)
故リ(15)	[Vst]-ㄱ ㅅ 故リ分(11) [Vst]-ㄱ ㅅ 故リナ丨(3) [Vst]-ㄱ ㅅ 故リㄱミ(1)	*
故ㅅ(23)	*	是(リ) 故ㅅ(23)
故七(1)	*	[NP]リㄱ 故七ノㄱヒ七(1)
기타(3)	*	何以故入ㄱ(3)

[표1] 석독구결에서 현토된 '故'자 목록

선행 동사에 '-ㄱ ㅅ'가 통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故土'로 현토되었다.

③ 선행 요소가 명사구일 경우, 그 명사구에는 거의 대부분(90%) 'ㅅ'

가 현토되며, 이 때 '故'자에는 예외없이 'ノ'나 'ノ'를 앞세운 토가 현토되었다.

④ 선행 요소가 "是(ㅣ)"일 경우, '故'자에는 예외없이 'ゝ'가 현토되었다.

⑤ 선행 요소가 "何以"일 경우, 선행 요소에는 토가 달린 예가 없으며, '故'자에는 'ㅗンロ ㄱ', 'ㅗン(白ノ/ナ)ヲ尸ㅅ ㄱ', 'ㅅ 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현토되었다.

이상의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故'자의 선행 요소의 종류에 따라 '故'자의 앞, 뒤로 현토되는 양상이 비교적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故'자의 선행 요소가 동사이면 '[Vst]-ㄱ ㅅゝ 故-x'로, 명사구이면 '[NP]ゝ 故ノ(x)'로, '是(ㅣ)'이면 '是(ㅣ) 故ゝ'로, '何以'이면 '何以故ㅗンロ ㄱ/何以故ㅗン(白ノ/ナ)ヲ尸ㅅ ㄱ/何以故ㅅ ㄱ'으로 현토된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9]

3. 문헌에 따른 '故'자의 현토 경향

확보된 용례를 '故'자의 선·후행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문헌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고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 발견된다.

① 용례의 수와 현토의 다양성에서 볼 때 <유가>가 가장 풍부한 반면[10] <화엄>이 가장 빈약하다.

---

9) 이 글에서 'x'는 '현토된 구결자가 있음'을 뜻하는 기호로 사용하기로 한다.

10) <유가>에는 '由ㅣ ㄱ ㅅゝ 故x'의 용례가 무려 43회나 출현하는 반면 다른 자료에는 한 예도 없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총 249)		구역인왕경	금광명경	유가사지론	화엄경	화엄경소
선행	후행	(17)	(48)	(145)	(5)	(35)
[Vst]-ㄱㅅㅁ	故ㅅ(x)	故ㅅ(4) 故ㅅㅣ(3) 故ㅅㅋ가(1)	故ㅅ(20) 故ㅅㅅ가(2) 故ㅅㅅㄷㅁ尸가(1) 故ㅅㅅ尸矣ㅏㄱㅋㅣ(2)	故ㅅ(96) 故ㅅㅅ仝人(1)	*	*
	故ㄱ	*	*	故ㄱ(1)	*	*
	故ㅈ(x)	*	*	*	故ㅈ(2)	故ㅈ(14) 故ㅈㅣ(1)
	故가	*	故가(7)	故가(15)	*	*
	故ㅣ	*	*	故ㅣ(9)	*	*
	故ㅗ	*	故ㅗ(1)	故ㅗ(3)	故ㅣ(1)	*
	故ㅂ	*	故ㅂ(1)	故ㅂ(2)	*	故ㅂ(1)
	故ㅋ-x	*	*	*	*	故ㅋ가(11) 故ㅋㅏㅣ(3) 故ㅋㄱㅣ(1)
[Vst]-x	故ㅂ	故ㅂ(1)	*	故ㅂ(1)	故ㅂ(1)	*
[NP]-ㅁ	故ㅅ(x)	故ㅅ(1) 故ㅅㅅㄷㅗㅏㄱㅋㄱㅜㅅㅇ(1)	故ㅅ(1) 故ㅅㅅ尸矣ㅏㄱㅋㅣ(1)	故ㅅ(3) 故ㅅㅅ가(1) 故ㅅㅅㅎ(1)	*	*
[NP]-x	故ㅊ-x	故ㅊㅅㄱㅌㅊ(1)	*	*	*	*
是(ㅋ)	故ㅁ	故ㅁ(2)	故ㅁ(11)	故ㅁ(8)	故ㅁ(1)	故ㅁ(1)
何以	故ㅗ(x)	*	故ㅗㅅ白ㅅ矛尸ㅅㄱ(1)	故ㅗㅅㅇㅁㄱ(3)	*	故ㅣㅅ矛尸ㅅㄱ(2) 故ㅣㅅㅏ矛尸ㅅㄱ(1)
	故ㅅㄱ	故ㅅㄱ(3)	*	*	*	*

[표2] 현토된 '故'자의 문헌별 분포

② 선행 요소가 동사일 경우, <구인>,<금광>,<유가>에서는 '故ㅅ(x)'로 현토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면서 '故ㅈ(x)'로 현토된 예는

없다. 반면에 <화엄>,<화소>에서는 '故ノ(x)'로 현토된 예는 없으면서 '故ㅊ(x)'로 현토된 예가 많다.

이 때 <금광>,<유가>에서는 '故ノ(x)'로 현토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故ㅁ, 故ㅣ, 故ㅗ'로 현토되었다. 한편 <화소>에서는 '故ㅊ(x)'로 현토되지 않은 경우, '故ㅁ, 故ㅣ, 故ㅗ'로 현토된 예는 없으면서 '故ㅐㅁ, 故ㅐナㅣ, 故ㅐㄱㅅ'로 현토된 예들이 있다.

③ 선행 요소가 명사구일 경우, <구인>,<금광>,<유가>에서는 거의 대부분 '故ノ(x)'로 현토되었다. 한편 <화엄>,<화소>에는 해당 용례가 없다.

④ 선행 요소가 '是(ㅐ)'일 경우, 모든 문헌에서 '故ㅱ'로 현토되었다.

⑤ 선행 요소가 '何以'일 경우, <구인>에서는 '故ㅅㄱ'으로, <유가>에서는 '故ㅗンロㄱ'으로, <금광>,<화소>에서는 '故ㅗンン(x)ヲ尸ㅅㄱ'로 각각 현토되었다.

이상의 관찰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용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Vst]-ㄱㅅㅱ 故x'의 환경에서 '故'자에 현토되는 양상이 문헌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이 환경에서 <구인>,<금광>,<유가>는 대체로 'ノ(x)'로 현토되는 반면 <화엄>,<화소>는 'ㅊ(x)'로 현토되었으며, 'ノ(x)'나 'ㅊ(x)'로 현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광>,<유가>에서는 '故-ㅁ/ㅣ/ㅗ'로 현토된 용례가 많은 반면 <화소>에서는 대부분 '故ㅐ(x)-ㅁ/ㅣ/ㅗ'로 현토되었던 것이다.[11]

이러한 관찰 결과는 구결자의 사용에서 크게는 <구인>,<금광>,<유가>와 <화엄>,<화소>가 한 부류로 묶일 수 있으며, 작게는 <화소>가 다른 문헌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1) 'ㅗ'는 <구인>,<화엄>,<화소>에서는 'ㅅ'로 표기되었으나 논의의 편의상 본문에서는 'ㅗ'로 통일하여 적기로 한다.

4. 통사적 환경에 따른 '故'자의 현토 경향

앞서 '故'자의 현토 경향이 선행 요소와 문헌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Vst]-ㄱㅅ゛ 故x'의 경우이다. <구인>,<금광>,<유가>에서는 '故ㅅ(x)'로 현토된 비율이 높긴 하지만 'ᄉᆞ, ㅣ, ㅗ, ᄀᆞᆫ' 등의 다양한 토가 달렸고, <화엄>,<화소>에서는 '故ㅅ(x)'가 쓰이지 않은 반면 'ᄒᆞᆫ(x)'나 'ㅣ-x'의 비율이 높으면서 'ㅗ, ᄀᆞᆫ'로도 현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Vst]-ㄱㅅ゛ 故x'의 경우에는 좀더 범위를 넓혀 그것이 속한 문장 전체의 통사적 환경에서 '故'자의 현토 경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Vst]-ㄱㅅ゛ 故x'가 포함된 문장에서 '-ㄱㅅ゛'는 선행어간이 지시하는 내용이 후행절이 지시하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조건절[12]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1) ㄱ. 歡喜事ㄴ 思惟ㅅㄱㅅ゛ 故ㅅ 便ᄒᆞ 能ᄉᆞ 速疾通慧ㄴ 證得ㅅᄂᆞᆫ ᄒᆞᄂᆞᆫ ㅣ <유가 28:19-20>

ㄴ. 慧無盡藏ᄋᆞᆫ 十 十ᄑᆞ 種ㄴ 不可盡 有ㄴㄱㅅ゛ 故ᄋᆞᆫ 說ᄑᆞ 無盡ᄋᆞ[爲]ㅅᄒᆞᄂᆞᆫ ㅣ <화엄 19:12-13>

(1ㄱ,ㄴ)에서 '歡喜事를 思惟'하는 행위나 '慧無盡藏에 열 가지의 不可盡이 존재'하는 현상은 후행절에서 '능히 速疾通慧를 證得'하는 행위나 '無盡이라고 說'하게 되는 현상의 원인이나 근거로 해석된다.

---

12) 선행절의 내용과 후행절의 내용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을 경우 둘 사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 범주로는 '조건', '인과', '가정', '양보' 등이 있는데, 의미 계층상 '조건' 관계가 다른 것들의 상위 범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장경희(1995), 안찬원(2000) 등 참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행절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선행절을 '(원인, 근거의) 조건절'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런 경우의 용례 대부분은 위 (1)에서처럼 '-ㄱㅅᄆᆞ 故x'가 단독으로 후행절의 조건절을 이루고, 그것이 후행절과 함께 하나의 단위 문장을 이룬다. 그리고 이 때에는 '故'자에 거의 'ㅣ'(<구인>,<금광>,<유가>의 경우)나 'ᄒᆞ'(<화엄>,<화소>의 경우)가 현토된 것을 볼 수 있다.[13]

그런데 '-ㄱㅅᄆᆞ 故x'에 의한 원인, 근거의 조건절이 두 개 이상 동시에 후행절을 수식하면서 그 전체가 하나의 단위 문장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2) ㄱ. 第七心ㅣ 能ᄉᆞ 得ᄒᆞ尒 生死險惡道ㄴ 度 令ㅣᄀᆞㄱㅅᄆᆞ 故ᄉᆞ 能ᄉᆞ 多ㅣㄱ 功德寶ㄴ 得ㅣ 令ㅣᄀᆞㄱㅅᄆᆞ 故ㅣ 是ㄴ 名下 方便勝智波羅蜜因ㅡㅣ弖ᄉᆞ <금광 02:11-12>

ㄴ. 是 [如]ᄒᆞㅣㄱ 諸 隨煩惱ㄴ 現行 不ᄒᆞㅣ[令]ㅣ[爲]ㅅㅣᄆᆞㅅㅁ 故ᄉᆞ 心ㄴ 練ㅣ[爲]ㅅㅣᄆᆞㅅㅁ 故ᄉᆞ 心ㄴ 調ㅣ[爲]ㅅㅣᄆᆞㅅㅁ 故ㅣ 彼ㄱ 是 思ㅣᄆᆞㅅㄴ 作ㅣㅏᄆᆞ …(생략)… <유가 16:12-14>

(2ㄱ)에서 '第七心이 능히 生死險惡道를 건너게 하는 것'과 '第七心이 능히 많은 功德寶를 얻게 하는 것'은 동시에 '方便勝智波羅蜜因이라고 일컫는 것'의 원인이나 근거로 해석된다. (2ㄴ)은 조건절이 셋인 경우로서, '모든 隨煩惱를 現行하지 않게 하려는 것', '마음을 練하려는 것', '마음을 調하려는 것'은 모두 동시에 '(뒤에 제시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13) 구결문에서 '故ㅣ'나 '故ᄒᆞ'가 선행절의 끝부분을 이루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후행절에 속하는, 접속부사의 성격을 가진 요소로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①'故ㅣ'나 '故ᄒᆞ' 다음에 다른 구결자가 현토된 용례에서는 '故ㅣ'나 '故ᄒᆞ'를 접속부사로 볼 수 없는 점 ②명사구([NP]ᄆᆞ)에 이어지는 '故ㅣ' 또한 접속부사로 볼 수 없는 점 ③'[Vst]-ㄱㅅᄆᆞ 故ㅣ' 다음에 '是故ᄆᆞ'라는 접속부사(어)가 이어지는 용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故ㅣ'나 '故ᄒᆞ'는 선행절에 속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故ㅣ'나 '故ᄒᆞ'의 문법적인 성격에 관한 것은 졸고(2001ㄴ)을 참조하기 바람)

것'의 원인이나 근거로 해석된다.

이처럼 하나의 후행절을 규정하는 원인, 근거의 조건절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금광>과 <유가>에서 관찰되는데, 앞의 조건절(들)에는 '-ㄱㅅㅠ 故ㆁ'로, 마지막 조건절에는 '-ㄱㅅㅠ 故ㅅ'로 현토되어 있다.

한편 '-ㄱㅅㅠ 故x'로 끝나는 절이 대등하게 나열되기만 하고 그것들의 규정을 받는 후행절이 존재하지 않는 구성도 있는데, 이 때는 '故'자의 현토 양상이 또다른 모습을 보인다.

(3) ㄱ. 何等ㅅㄱㄴ [爲]四ㅛㅣㅅㅇㅁㅁ 一十ㄱ [於]三摩地方便ㄱ十 善巧 不ㅂㅇㅛㅂㅁㅅㅠ 故ㆁ 二 [於]一切 修定方便ㄱ十 全ㅎ 加行 無 ㅈㅇㅛㅂㅁㅅㅠ 故ㆁ 三 加行ㄴ 顚倒ㅇㅛㅂㅁㅅㅠ 故ㆁ 四 加行ㄴ 緩緩ㅇㅛㅂㅁㅅㅠ 故ㅣ <유가 14:19-22>

ㄴ. 何ㅎ 等ㅣㅅㄱㄴ 十ㅁㄱㅅㅇㅁㅁ[爲]ㅅㅏㅈㅁㅅㄱ 一切衆生ㄴ 饒益ㅅㅁㅅㅠ 故ㅂㆁ 本願ㄴ 以ㄱ 善ㅈ 迴向ㅅㅁㅅㅠ 故ㅂㆁ 一切劫ㄱ十 斷絶ㅁ 無ㅂㅅㅁㅅㅠ 故ㅂㆁ 虛空界ㄴ 盡ㄱ 悉ㄱ 開悟ㅅㅁㅁ 心ㅎ 限ㅁ 無ㅂㅅㅁㅅㅠ 故ㅂㆁ 有爲ㄱ十 迴向ㅅ ㅇㄱ 而ㄱ 著ㅁ 不ㅅㅁㅅㅠ 故ㅂㆁ 一ㄱ 念ㅊ 境界ㄱ十 一切 法 盡ㅁ 無ㅂㅅㅁㅅㅠ 故ㅂㆁ 大願ㅊ 心ㅎ 變異ㅁ 無ㄱㅅㅠ 故ㅂㆁ 善ㅈ 諸ㄱ 陀羅尼ㄴ 攝取ㅅㄱㅅㅠ 故ㅂㆁ 一切 諸ㄱ 佛ㅂ 護念ㅅㅎㅎㅁ 所ㅂㄱㅅㅠ 故ㅂㆁ 一切法ㅋ 皆ㅊ 幻 如ㅈ ㅅㄱㅅㄴ 了ㅅㅁㅅㅠ 故ㅂㅏㅣ <화소 26:12-19>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ㄱㅅㅠ 故x'의 대등 나열 구성일 때 <유가>에서는 마지막 절에는 '故ㅣ'로 현토하고 나머지 절에는 '故ㆁ'로 현토한 반면, <화소>에서는 마지막 절에는 '故ㅂㅏㅣ'로 현토하고 나머지 절에는 '故ㅂㆁ'로 현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故ㅂ-x'는 <화소>에만 나타난다. 그런데 '故ㅂㄱㅈ'의 한 예를 제외한 나머지 '故ㅂㆁ'와 '故ㅂㅏㅣ'의 용례는 모두

이러한 대등 나열 구성에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화소>에는 '故ㅁ'와 '故ㅣ'의 용례가 없다. 따라서 <화소>의 '故ㅐㅁ', '故ㅐㄴㅣ'는 <유가>에서 '故ㅁ', '故ㅣ'로 현토된 자리에 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 '[Vst]-ㄱㅅ 故x'의 통사적 환경에 따른 현토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ㄱㅅ 故x'로 끝나는 절이 후행절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조건절을 이루는 경우, <구인>,<금광>,<유가>에서는 '故ㅅ'로, <화엄>,<화소>에서는 '故ㅈ'로 현토하였다.
② '-ㄱㅅ 故x'에 의한 조건절이 둘 이상 나열될 때에는 앞의 조건절(들)에는 '故ㅁ'로, 마지막 조건절에는 '故ㅅ'로 현토하였다.(<구인>,<화엄>,<화소>에서는 해당 용례 없음)
③ '-ㄱㅅ 故x'로 끝나는 절이 대등 나열 구성을 이루는 경우, 마지막 절에는 '故(ㅐㄴ)ㅣ'로 현토하고 나머지 절에는 '故(ㅐ)ㅁ'로 현토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Vst]-ㄱㅅ 故x'의 경우에 있어서도 통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일관되게 현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故'가 문장 종결의 위치에 있으면 '故(ㅐㄴ)ㅣ'로, 인과관계를 가지는 접속문의 선행절에 속해 있으면 문헌에 따라 '故ㅅ'나 '故ㅈ'로, 나열관계를 가지는 접속문의 선행절에 속해 있으면 '故(ㅐ)ㅁ'로 현토되었던 것이다.

5. 현토 경향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예들

지금까지 선행 요소, 문헌의 종류, 통사적 환경 등을 기준으로 '故'자에 현토된 구결자들은 각각 어떤 환경에서 쓰였는지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현토된 '故'자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故ㅅ, 故ᄎ, (是)故ᄆᆞ, (何以)故ᄇᆞ, 故(ㅣ)ᄀᆞ, 故(ㅣㄴ)ㅣ' 등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현토된 환경을 일반화하여 기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위에서 고찰한 경향성을 벗어나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나머지 소수의 예들에 대하여 '故'자의 현토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5.1. '([Vst]-ㄱ ㅅ ᄆᆞ) 故ㅅ-x'의 경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Vst]-ㄱ ㅅ ᄆᆞ 故(x)'의 환경에서 '故'자가 '故ㅅ'로 현토되는 통사적 환경은, 그것이 인과관계를 가지는 접속문의 선행절에 속해 있을 때이다. 그러나 '故ㅅ' 다음에 다른 구결자들이 현토된 용례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14]

(4) 何以故ᄒᆞᄀᆞ [於]第一義ᄋᆞ+ 而ᄆᆞ 二 不矣ᄀᆞᄒᆞᄆᆞ 故ㅅㄹᆞᄉᆞ 諸ㄷᆞᄀᆞ 佛ㄹᆞㄷᆞᄑᆞ 如來ᄉᆞ 乃ᄋᆞ 至ㄹ 一切法ᄉᆞㅅᄉᆞᄀᆞ 如ㄹᆞㄷᆞᄀᆞㅅᄆᆞ 故ㅅᄉᆞ <구인 15:19-20>

(4)는 '何以故'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는 두 문장이 대등하게 나열된 형식이다. 따라서 '故'자가 속한 통사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밑줄 친 '故ㅅㄹᆞᄉᆞ'는 '故ᄉᆞ'나 '故ㄹᆞᄉᆞ'로 현토하였을 것이 예상되고, '故ㅅㄴ'의 경우에는 '故(ㅣㄴ)ㅣ'(혹은 '故ㄴ')로 현토하였을 것이 예상되는 자리이다.(5.3.절 참조)

(5) ㄱ. 何者爲五 一者 三業 淸淨ㅅᄉᆞ 二者 …(생략)… 不ᄉᆞㅅᄉᆞ 三者 …(생략)… 開ㅅᄉᆞ 四者 …(생략)… 過ㅅᄉᆞ 五者 …(생략)… (滿足)ㅅᄒᆡᄋᆞᄑᆞㅅᄆᆞ 故ㅅᄉᆞᄑᆞ矣ㄴᆞᄀᆞㄹᆞㅣ <금광 02:18-03:04>

14) 이러한 용례는 <구인>,<금광>,<유가>에 모두 10개가 있다.(색인 참조)

ㄴ. 何(者爲五) 一者 …(생략)… 不散ンカ 二者 …(생략)… 不着ンカ 三者 …(생략)… 成熟ス刂[爲]人ンア入ム 故ノンカ 四者 …(생략)… 淸淨ス刂[爲]人ンア入ム 故ノンカ 五者 …(생략)… 斷ス刂[爲]人ンア入ム 故ノンア矣ナ刀刂丨 <금광 03:15-20>

(6) ㄱ. 何者爲五 一者 信根しンカ 二者 慈悲しンカ 三者 求欲心 無カ 四者 一切衆生し 攝受ンカ 五者 一切智智し 願求ンカンア矣ナ刀刂丨 <금광 02:18-03:04>

ㄴ. 云何爲五 一者 …(생략)… 無カ 二者 …(생략)… 無有セカ 三者 眞俗勝智しンカ 四者 …(생략)… 斷ンカ 五者 …(생략)… 通達ンカンア矣ナ刀刂丨 <금광 03:20-04:03>

(5)의 용례들은 다섯 가지 사항의 대등 나열 구성이다.[15]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밑줄 친 '故ノンカ'는 '故(刂)カ'로, '故ノンア矣ナ刀刂丨'는 '故(刂ナ)丨'로 현토하였을 것이 예상되는 자리이다. 그런데 (5)의 용례들은 <금광>의 앞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6)과 같은 문장들과 동일한 형식의 것임이 주목된다. 이들 문장은 나열된 절이 '-(ン)カ'로 연결되어 있고 문장 전체는 '-ンア矣ナ刀刂丨'로 종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현토 경향과 '故ノンカ', '故ノンア矣ナ刀刂丨'로 현토된 결과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동사구 끝의 '故ノ'에 다른 구결자가 현토되어 있는 용례들은, 현재로서는 어떤 환경에서 왜 그러한 현토가 이루어졌는지 일반화하여 말하기 어렵다.

5.2. '故ヶ'의 경우

'故ヶ'는 <유가>에 유일례가 있다.

15) (5), (6)의 용례에서 '何者爲五'에 달린 토는 논의의 편의상 모두 생략하였다.

(7) 彼 相ㄴ 思惟ㅅ ᄀᆞ ᄉᆞᆫ 由ᄒᆞᄀᆞ ᄉᆞᆷ 故ㅅ 心ᄒᆞ 厭患ㅅᄆᆞᆯ ᄉᆞᆫ 生ㅣᄒᆞ 卽ᄀᆞ [於]此 相ᄒᆞ 所作 多ㅅᄀᆞ ᄉᆞᆷ 故ᄀᆞ 心 極 厭患ㅅᄒᆞᄉᆞ <유가 22:15-17>

(7)에서 '故ᄀᆞ'의 'ᄀᆞ'는 '[Vst]-ᄀᆞ ᄉᆞᆷ 故x'의 환경에서 쓰였다. 그리고 이 '[Vst]-ᄀᆞ ᄉᆞᆷ 故x'는 단독으로 후행절의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조건절을 이룬다. <유가>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예외없이 'ㅅ'가 쓰였으므로, 이 'ᄀᆞ'는 단지 'ㅅ'를 달리 적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유가>에서 일반적으로 '隨ㅅ'(07:16 등)로 표기되는 어형이 '隨ᄀᆞ'(09:14)로도 표기된 것과 동일한 현상으로 보인다.

5.3. '([Vst]-ᄀᆞ ᄉᆞᆷ) 故ㄴᆞ'의 경우

'[Vst]-ᄀᆞ ᄉᆞᆷ 故x'의 환경에서 'ㄴᆞ'가 쓰인 용례가 <금광>,<유가>,<화엄>에 5개가 있다.

(8) ㄱ. 去來ㅅᄆᆞ 所 無ᄒᆞᄆᆞᄒᆡ 一體法ㄱ 異ㅅㄱ 無ㅅᄀᆞ ᄉᆞᆷ 故ㄴᆞ <금광 14:20-21>

ㄴ. 最勝因ㄴ 依ᄒᆞ 先ᄒᆞ 說ㅅㄱ 事ㄴ 如ㅎ 逆次ᄆᆞ 說ㅅᄀᆞ ㅣᄀᆞ ᄉᆞᆷ 故ㄴᆞ <유가 23:11-12>

ㄷ. 菩薩ㄱ …(생략)… 諸ㄱ 仙ㄷ 行等ㅣ ㅅㄱ ᄂᆞᄒᆞᄀᆞ ᄀᆞᆷ 悉ᄒᆞ 餘ㅅㄱ 無ㅣㅅㄴᆞᄒᆞᄆᆞᄒᆡ 衆生ㄴ 利益ㅅ[爲欲]ㅅㅅᄆᆞᄆᆞᆯ ᄉᆞᆷ 故ᄒᆞ <화엄 18:18-19>

ㄹ. 何以故ㄴᆞㅅㅇㅁㄱ 諸 有學ㄱ 聖法 [有]ㅂㄴㅅ[雖]ㅂ 而ㄱ 相續ㄷ 中ᄒᆞᄉᆞ 非聖煩惱ㅋ [之] 隨逐ㅅㄱ 所ㅣ 現ᄒᆞ 得ㅅᄒᆞ可ㄷㅅㄱ ᄉᆞᆫ 由ᄒᆞᄀᆞ ᄉᆞᆷ 故ㄴᆞ <유가 04:02-04>

(9) ㄱ. 謂ㄱ 聞正法圓滿ㅅ 涅槃爲上首ㅅ 能熟解脫慧ㄷ 成熟ㅅᄒᆞᆫ 依ㅅᄀᆞ ᄉᆞᆷ 故ㅣ <유가 07:21-23>

ㄴ. 一十ㄱ 通達作意し 由ㅣㄱㅅ 故ㅣ 謂ㄱ 是 [如]ᄒᆞᆫㄱ 通達作意し 由ᄒᆞ 无間ᄒᆞᆫ 必ㅎ 能ᄀᆞ 正性離生ᄒᆞ十 趣入ㅅ尸ㅁ 諦現觀ᄒᆞ十 入ㅅᄒᆞ 聖智見し 證ㅅ尸矢ㅣ <유가 22:23-23:03>

ㄷ. 何以故ᄒᆞㅅ手尸ㅅㄱ [此]ㅣ 菩薩ㄱ 盡虛空徧法界ㅌ 邊尸 無ㄱ 身し 成就ㅅㄱㅅ 故ㅣㅏㅣ <화소 26:2-3>

(8)의 네 용례는 문장이 종결되는 위치에서 '-ㄱㅅ 故ㅗ'로 현토된 경우이다. 그런데 이처럼 문장이 종결되는 자리에서는, (9)에서처럼, '-ㄱㅅ 故(x)ㅣ'로 현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10) 一十ㄱ …(생략)… 自作 能 不ㅎㅅ尸ㅅ 故ᄀᆞ 二 …(생략)… 能ᄀᆞ 成辦ㅅ仝 非矢ㅣㄱㅅ 故ᄀᆞ 三 …(생략)… 成ㅣ尸 不ㅎㅅ尸ㅅし 由ᄒᆞㄱㅅ 故ㅗ 四十ㄱ …(생략)… 對治道ㅣ 无ㅅㄱㅣ十ㄱ 先 造作ㅅㄱ 所ㅌ 惡不善業し 必ㅎ 壞ㅅㅣ尸 不ㅎㅅ尸ㅅ 故ㅗ 五 彼 淸淨ㄱ 學无學道し 證得ㅅㄱㅅ 顯ㅅㄱ 所ㅣㄱㅅし 由ᄒᆞㄱㅅ 故ㅣ <유가 22:01-09>

한편 (10)의 문장은 '-ㄱㅅ故x'로 끝나는 절의 대등 나열 구성이다. 이런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지막에 위치하지 않은 절은 '-ᄀᆞ'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Vst]-ㄱㅅ 故ㅗ'의 용례들은 '故ㅣ'나 '故ᄀᆞ'로 현토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경우에 '故ㅗ'로 현토한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왜 'ㅣ'나 'ᄀᆞ' 대신 'ㅗ'가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어말어미의 위치에 쓰인 'ㅗ'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4. '故ㄷ'의 경우

'故ㄷ'는 선행 요소가 동사인 환경에서만 쓰였는데, '-ㄱㅅㅱ'를 선행토로 한 예가 <금광>,<유가>,<화소>에 모두 4번 나타나고, 선행토가 '-ㄱㅅㅱ'가 아닌 경우도 <구인>,<유가>,<화엄>에 각각 1번씩 나타난다.

먼저 '[Vst]-ㄱㅅㅱ 故ㄷ'의 용례들의 통사적 환경을 살펴보면, <유가>,<화소>의 세 용례는 '-ㄱㅅㅱ 故ㄷ'가 단독으로 후행절의 조건절을 이루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환경에서 <유가>에서는 '-ㄱㅅㅱ 故ノ'로, <화소>에서는 '-ㄱㅅㅱ 故ᄒᆞ'로 현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금광>에 있는 다음 용례는 '故ㄷ'가 문장이 종결된 다음에 쓰였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11) 何以故 善男子ᄋᆞ 是ㄱ 不退地菩薩 善根ㄴ 成熟ノᄉᆞᆫ 是ㄱ 第一印ㅣㄴㄱᄉᆞ 是 金光明微妙經典ㄱ 衆經ᄋᆞㄴ[之] 王ㅣᄉᆞᆫ<u>ㄴㄱㅅㅱㄴ 故ㄷ</u> <금광 13:24-14:01>

'[Vst]-ㄱㅅㅱ'와 '故'자 사이에 'ㄴ'가 통합되어 있는데, 다른 경우에서라면 (위 (8ㄹ)에서처럼) '-ㄱㅅㅱ 故ㄴ'로 현토했을 것이 예상되는 자리인 것이다.[16]

그리고 'ㄷ'자가 쓰인 나머지 세 용례는 '[Vst]'과 '故'자 사이에 '-ㄱㅅㅱ'가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특이하다.

---

16) 한편 이 용례에서의 '故ㄷ'는,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내용을 고려하면, 앞의 '[Vst]-ㄱㅅㅱㄴ'로 종결된 문장과 관련된 요소가 아니고 부사어로서 뒷 문장의 첫 성분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1997년 3월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발표지(이승희) 참조)

(12) ㄱ. 一 非矣分 異 非矣古ろ 故古 名ゝ 續諦ゝノヰリ分 <구인 14:08>

ㄴ. 能分 十種過失し 遠離ソき 又 能分 聖所住處ゝ十 安住ソき ソㄱ入し [以]ゞゝ 故古 名下 功德ナノヰ丨 <유가 31:06-07>

ㄷ. 家ㄱ 是ㄱ 貪愛繫縛ヒ 所リヒ 衆生し 悉ゝ 免離 使リ[欲]ㅅ 故古 出家ソゝホ 解脫し 得ゝ [於]諸ㄱ 欲樂ゝ十 受ㄱ尸 所ゝ 無ㄱㄱのし 示リナ分 <화엄 18:16-17>

(12)에서 '[Vst]-x 故古' 부분의 동사 어간에 해당하는 '非矣-', '[以]ゞ-', '[Vroot]-使リ[欲]ㅅ-'는, 다른 용례에서는 '[Vst]-x 故x'의 환경에서 예외없이 '[Vst]-ㄱ入ᄆ 故x'로 현토된 것들이다.

이처럼 선행 요소가 동사 어간일 때의 일반적인 현토 경향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에 '故古'로 현토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그러한 현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기술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5.5. '故ヒ-x'의 경우

'故'자에 'ヒ'이 직접 통합된 예가 <구인>에 유일하게 보인다.

(13) 前ラ 餘ソㄱ 習リㄱ 無明緣ゝ 無明習相リㄱ 故ヒノㄱヒヒ 煩惱ゝノし 除ソニトろㄱ入ㄱ <구인 11:1-2>

(13)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하다. '故'자의 선행 요소가 명사구일 때, 그 명사구가 '[NP]ᄆ'로 현토되지 않은 유일례라는 점과 '故ノ(x)'로 현토되지 않은 유일례라는 점이다. 그러나 참조할 수 있는 다른 예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경우에 대해 더 이상의 현토 양상을 논하

기는 어렵다.

6. 맺음말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기존의 석독구결에서 '故'자에 구결자가 현토되는 양상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여 왔는데,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반적인 '故'자의 현토 경향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첫째, '故'자가 동사구 끝에 위치한 경우, 동사는 '-ㄱㅅ'로 현토되었으며, 이 때

① '故'가 문장 종결의 위치에 있으면 '故ㅣ'(<화소>에서는 '故ㅐナㅣ')로 현토되었다.

② '故'가 인과관계를 가지는 접속문의 선행절에 속해 있으면 '故ノ'(<화엄>,<화소>에서는 '故ㅈ')로 현토되었다.

③ '故'가 나열관계를 가지는 접속문의 선행절에 속해 있으면 '故ケ'(<화소>에서는 '故ㅐケ')로 현토되었다.

둘째, '故'자가 명사구 끝에 위치하는 경우, 명사구는 '-ㅅ'로 현토되었으며, 이 때 '故'는 '故ノ(x)'로 현토되었다.

셋째, '故'자가 독립된 명사로 쓰인 경우, '是故'는 '是(ㅐ) 故ㅅ'로 현토되었고, '何以故'는 '何以故ㅗン(x)ヲ尸ㅅㄱ'(<유가>에서는 '何以故ㅗンロㄱ', <구인>에서는 '何以故ㅅㄱ')으로 현토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현토 경향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① '故'자가 동사구 끝에 위치했으면서도 동사가 '-ㄱㅅㅁ'로 현토되지 않은 경우, '故ㅗ'로 현토되었다.
② '故'자가 명사구 끝에 위치했으면서도 명사구가 '-ㅁ'로 현토되지 않은 경우, '故ㄴ-x'로 현토된 경우가 있다.
③ 동사 어간 뒤의 '故ㅅ'에 다른 구결자가 통합된 경우, '故'자의 통사적 환경이 '故ㅅ'로 현토된 경우와 다르다.
④ '故(x)ㅣ'나 '故(x)ㅁ'로 현토될 자리에 '故ㅓ'로 현토된 경우가 있다.
⑤ '故ㅅ'로 현토될 자리에 '故ㅋ'나 '故ㅗ'로 현토된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 얻게 된 기존 석독구결 자료의 현토 경향에 대한 지식은 앞으로 각필 자료의 해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으며, 점토석독구결의 '故'자에 현토된 구결점에 대한 고찰은 다음의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남성우 · 정재영(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집, 구결학회.
남풍현(1998), 「瑜伽師地論(卷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집, 구결학회.
_____(1999),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태학사.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제7권 4호, 국립국어연구원.
_____(1998), 「舊譯仁王經 口訣의 構文論的 양상」, 『口訣硏究』 5집, 구결학회.
백두현(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ᄎᆞ와 ᄉᆞ-그 讀音과 문법 기능」, 『어문논총』 27호, 경북어문학회.
_____(1997), 「高麗 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

의 文字』, 태학사.
안찬원(2000), 『국어 조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계층구조 연구』, 연세대 석사 학위 논문.
이승재(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집, 국어학회.
_____(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집, 구결학회.
장경준(2001ㄱ), 「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자의 독음과 의미기능」, 『제24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_____(2001ㄴ), 「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자의 문법적 기능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탐구』 V, 태학사.
장경희(1995), 「국어 접속어미의 의미구조」, 『한글』 227호, 한글학회.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_____(1999), 「舊譯仁王經 구결의 종결어미」, 『口訣硏究』 5집, 구결학회.
정재영(1996), 「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 『口訣硏究』 1집, 구결학회.
_____(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집, 구결학회.

釋讀口訣の '故'字の懸吐傾向に 對する 考察

張景俊

この文は 字吐釋讀口訣資料 5種を對象にして '故'字の懸吐傾向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先行要素, 文獻の種類, 統辭的環境等を基準に檢討した結果 '故'字の一般的な懸吐傾向を 次のように記述することができた。

第一に, '故'字が動詞句の終わりに位置した場合, 動詞は '-ㄱㅅㅱ'と懸吐され, この時 ①'故'が文章終結の位置にあれば '故ㅣ'(<華疏>では '故ㄹㅏㅣ')と懸吐され, ②'故'が因果關係を持つ接續文の先行節に屬していれば '故ㅅ'(<華嚴>,<華疏>では '故ㅸ')と懸吐され, ③'故'が羅列關係を持つ接續文の 先行節に屬していれば '故ㅁ'(<華疏>では '故ㄹㅁ')と懸吐された。

第二に, '故'字が名詞句の終わりに位置する場合, 名詞句は '-ㅱ'と懸吐され, この時 '故'は '故ㅅ(x)'と懸吐された。

第三に, '故'字が獨立した名詞で書かれた場合, '是故'は '是(ㄹ) 故ㅱ'と懸吐され, '何以故'は '何以故ㅡㅅ(x)ㅎㅏㅁㅅㄱ'(<瑜伽>では '何以故ㅡㅅㅁㄹㄱ', <舊仁>では '何以故ㅅㄱ')と懸吐された。

そして このような一般的な懸吐傾向からはずれた少數の用例は5種類の類型に分けてみることができた。

このような既存釋讀口訣資料の懸吐傾向に對する知識は この先 角筆資料の解讀の助けになるものと思われる。